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제3259호 www.metroseoul.co.kr

중국 손에 달렸다

정부는 15일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중국 창장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국제입찰에는 국내 컨소시엄 2개와 외국업체 6곳이 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미국 2곳, 네덜란드 1곳, 덴마크 1곳, 중국 2곳 모두 세계적 인양업체들이지만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

인양기술의 경우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선체 내 빈 공간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선체를 약간 들어올린 후 선체 아래에 인양용 철제빔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3.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인양빔에 1만톤급 크레인을 연결해 선체를 수심 2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2킬로미터 떨어진 안전지역으로 이동한다. 이어 반잠수식 플로팅도크에 선체를 선적하고 물을 뺀 뒤 목포신항에서 육상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정부가 제안한 방법보다 온전한 선체 인양에 낫다는 평가다. 입찰금액의 경우 상하이샐비지는 851억원을 제시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Industry p/11

"포스코 계열사 절반 정리"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제325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2072.91 (+13.68)

코스닥 761.59 (+4.47)

금리(국고채 3년) 1.49 (+0.01)

환율(원·달러) 1143.50 (+1.40)

'개미' 맘에 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총 D-1 확실한 표, 삼성 32% - 엘리엇 12%
기관은 결국 국내 - 삼성, 외국 - 엘리엇 양상
개인은 막판 올수록 삼성으로 기우는 분위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17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찬반 표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향방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소액주주 표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초반과 달리 주총이 가까워지면서 삼성 쪽에 점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계열사 수장들 얼굴에서도 자신감이 배어나는 등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마지막 뚜껑을 열기 전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삼성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고 있다. 당사자인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위임장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 할 정도다.

삼성물산과 각 증권사가 낸 자료를 종합하면 15일 오후 현재 삼성이 확실한 우호세력으로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은 31.62%다. 엘리엇은 12.08%를 확실하게 손에 쥔 것으로 추정됐다.

주총 결과는 여전히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연금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잇달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추는 점점 삼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주총 참석률을 80%대로 전망했다.

주총에서 삼성이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참석지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석률 80%를 가정하면 삼성에게 필요한 우호지분은 53.3%다. 국내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삼성 합병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도 "1~2곳을 제외한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까지 합치면 삼성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최소 40%대 초반까지는 되는 셈이다.

삼성물산이 신문광고와 '맨투맨' 작전으로 확보한 소액주주의 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투업계의 관계자는 "결국 외국 기관 투자자가 얼마만큼 ISS(기관투자자서비스) 합병 반대 권고를 받아들이느냐와 소액 개인투자자가 얼마만큼 삼성 편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번 주총에서 압도적인 판전승을 거둬 뒤탈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사장은 "강하게 큰 차이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 단기 투기자본이 더 이상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 후에도 엘리엇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롭힐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더 이상 투기 자본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엘리엇도 마지막까지 우군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해 목소리를 높여달라"며 합병 반대를 호소했다.

/조한진·임은정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엘리엇 우호지분 현황

삼성 우호지분		찬반 미확정 지분		엘리엇 우호지분	
삼성SDI	7.39%				
삼성화재	4.79%				
이건희 회장	1.41%			엘리엇	7.12%
삼성복지재단	0.15%	기타국내기관	10.42%	메이슨캐피털	2.20%
삼성문화재단	0.08%	소액주주	22.23%	일성신약	2.20%
KCC	5.96%	기타외국기관	23.65%	네덜란드연기금	0.35%
국민연금	11.21%			캐나다연기금	0.21%
사학연금	0.31%				
하나UBS운용	0.02%				
신영자산운용	0.30%				
31.62%		56.30%		12.08%	

폴 엘리엇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한줄 News

▲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 개발업체 '안랩'의 창업자인 **안철수** 의원에게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과 해군 정보함 사업,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등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샐비지'와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가 각각 이끄는 컨소시엄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29조6868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8~6.9%)를 웃돌고 지난 1분기(7.0%)와는 같다.

▲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국보급 불상 '**동조여래입상**'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새누리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일부 경제인과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 안팎의 악재로 고전해온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내실화, 경영 의사결정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거래관행 개선, 윤리경영 정착 등 5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계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6월 취업자가 2620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5일 발표했다.

▲ 전경련은 ①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④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 '**남북 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15일 제시했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월 신규취급액 기준 1.66%로 지난달(1.75%)보다 0.09%포인트 하락하며 역대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습기제거제**의 제습 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12개 제품 중 5개는 내용물이 쉽게 새거나 깨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피우다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5일 밝혔다.

이란發 오일쇼크 온다

미국 휘발유가 1갤런당 2.78 달러→2 달러 이하로 연말 하락 전망

이란발 오일쇼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다만 70년대 오일쇼크와는 정반대다. 산유대국 이란이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되면 포화상태인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다. 운전자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중동국가들은 가격하락 압박을 받게 됐다. 이미 미국 셰일오일과의 경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수출을 늘려온 상태다.

미국의 CNN머니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미국이 맞게 될 변화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란발 충격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당장 미국 노동절(9월 7일)을 지나면 월평균 갤런(약 3.78리터)당 10~15 센트가 떨어지고 연말쯤에는 2 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는 갤런당 2.78 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핵개발에 나선 이란의 원유를 95년 이래 수입하지 않았다. 전날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타결됐지만 원유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란발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유럽시장에 이란 원유가 풀린다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란의 원유 저장고에는 3000만 배럴의 물량이 비축돼 있다는 보고(컨설팅업체 FACTS글로벌에너지)가 있다.

현재의 원유 시장은 이란발 충격에 민감한 상태다.

미국의 셰일오일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석유수출기구(OPEC)는 셰일오일을 누르기 위해 산유량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와 이라크 역시 기록적인 산유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이라크는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유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유럽은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 금융위기가 상존해 있고, 중국 역시 증시파동을 비롯해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원유 수요가 줄고 있다.

유가 전문단체 '휘발유 가격 정보 서비스'의 수석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이란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석유산업 기반을 정비하고 내년에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독일판 유사언론?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 최신호(7월11일자)의 표지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표지에는 반바지에 독일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상의를 입고 오른손에는 유로화 지폐가 가득한 지갑을 든 남자와 그리스 전통의상을 입고 왼손에 술잔을 든 남자가 등장한다. 술잔을 든 남자가 다른 남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배경은 그리스의 유명관광지 산토리니다. 사진 위에는 '우리 그리스인들, 이상한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그리스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 편집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성명을 내고 "정치적 풍자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표지사진을 통한 풍자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최근 메트로신문은 표지사진을 통해 재벌대기업 오너들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유사언론(사이비언론)이라고 매도당했다. 기업인에 대한 풍자와 정치적 풍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양자 간 차이는 재벌 오너를 신성시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슈피겔 홈페이지

중국 2분기 7%성장 '제자리'… 서방 "높게 나왔다" 불신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4~6월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3월기의 7.0%와 비교해 제자리 수준이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성라이윈 통계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통계치를 발표하고 "(경기대책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방심할 수 없다. 더욱 정책을 실시해 좋은 상황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6월기 경제지표는 주택 불황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의 신장률이 1~3월기에 비해 축소됐다. 기업 설비 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 신장률도 하락했다.

반면 공업생산은 4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신장률이 회복됐다. 소매 판매실적도 인터넷 쇼핑의 호조로 회복 경향에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4차례에 걸친 이자 인하 등으로 금융을 완화했다. 철도와 도로 등의 공공사업도 잇따라 인가해 경제 상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2014년에 7.4%로, 연간으로는 24년 만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5년 성장률 목표를 2014년의 7.5%에서 7.0%로 내렸다.

이같은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서방 일각에서는 "전망치(6.8% 내외)보다 높게 나왔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2분기 중국의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등 각종 지표들이 대부분 1분기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송병형 기자

새누리, 5달 만에 '증세 없는 복지'로 컴백

당청관계 복원 열심 '유승민 지우기' 계속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청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출범한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와 적극적으로 정책적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정책위의장으로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유승민 체제'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속속 제시하고 있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거듭 출연해 "국민 삶이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에서 생겨나는 세수라든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에 투입하는 게 맞다"며 "경제활성화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정 어려울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 태화시장 상인과 인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울산 태화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위해 울산에 왔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김무성 대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청관계 복원을 위해 '유승민 색깔 지우기' 작업에 열중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은 가능하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0도 노선변경의 이유는 분명하다. 청와대를 의식한 행보다. 다만 수직적 당청관계로 후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청 간의 관계는 부부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 않나"며 "그런데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돼야지 이것이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추대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취임 일성으로 "당청은 한 몸이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 혹은 수평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다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회항함에 따라 가장 먼저 법인세 인상 논의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하기 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정경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벌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야당에서는 협상파트너의 교체로 힘이 빠지게 됐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에 앞서 김무성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지만 앞으로 재차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에서 청와대에 몸을 굽혔고, 당청관계 갈등이 재발하기를 원하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유승민식 개혁보수의 노선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정부 "기간제 교사라 순직 불가"

세월호법 개정 거론

정부가 15일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상시 공무원이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원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기간제 교사 유가족들이 제출한 순직신청서를 반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일부러 순직 인정을 안해 주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두 교사는 5층 객실에 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는 증언이다.

유가족들은 순직 인정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김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6세)씨는 전날 시민 9만명의 서명을 들고 인사혁신처를 찾아가기도 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법적으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416연대 등으로 구성된 순직인정대책위는 전날 9만명 서명 제출에 앞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교육 공무원이 명확하다"며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비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를 통해 현행법상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법률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정서적 접근법'이라고 반박하지만 한편으로 해법을 궁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국정원 해킹 조사에 '백신왕' 안철수 등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에는 안철수 연구소뿐 아니라 교수 및 전문가 집단 등 외부인사들이 두루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를 망라한 진상조사 특위구성을 제안하며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당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도·감청 관련 국민 불안 해소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당내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위원장직 수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약 20명분의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했지만 대북·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과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정원 기자

입영대기자 폭증에 '현역 판정 감축' 검토

국방부가 입영대기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 징병검사 현역 판정기준을 변경해 현역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 판정기준 변경에 대한 용역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입영대기자 숫자는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000명 수준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추세라면 2022년까지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용역 의뢰와는 별개로 당장 적체를 줄이기 위해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기자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항소심서 혐의인정 선처호소

‘청탁 명목’은 부인

사건 청탁 대가로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최민호 전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항소심에서 반성을 전략으로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판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최 전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사과와 위로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며 이 재판의 핵심인 ‘청탁 여부’ 의혹을 부인했다.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판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다만 변호인은 “최 전 판사가 최씨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떠나 최씨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 의례적 수준을 넘는 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의 죄책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 판사는 원심 선고 후 심한 자책감에 항소를 주저했다”며 “아무리 부끄러운 처신이었다 해도 처벌에 있어서 법적인 평가만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으로서 최 전 판사를 항소심 법정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직자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 전 판사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에서 최 전 판사의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2009~2011년 사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 대법원이 이를 수리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미란 기자 actor@

합수단, 김양 구속 기소

‘와일드캣 도입비리’ 혐의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치고 유럽우주항공방산(EADS) 수석고문 등을 맡으며 방산업계에서 12년간 몸담아 왔다. 2008년 3월~2011년 2월까지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날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 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직을 떠난 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 8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1차 사업으로 헬기 8대를 국외 구매하고, 2차 사업에서 12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와일드캣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가로 2012~2013년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총 9억8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처장은 국방부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던 지난해 5월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쪽에 “사업 추진 방향이 국외구매로 결정되게 하겠다”며 추가 성공 보수와 고문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이에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지난해 6월 김 전 처장에게 추가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해 10월 2차 사업에서도 와일드캣이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 대가로 3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문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로비한 정황이 있는지 등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독도는 우리땅! 15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 광장에서 화순중, 화순제일중, 이양중·고 학생 700여명이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방 교육대 교수 성매매 혐의로 입건

지방 교육대학 교수들이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은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방 교육대학 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공이 같은 이들은 지난 6일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가게 된 경위와 접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들 중 2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강남지역 대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4·16연대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응할 것”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6연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래군(사진)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실현을 꺾으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마구잡이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회법 개정을 뒤엎었다”며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이와 일맥상통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원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배”

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강제입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일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서 규정한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 강제입원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여건으로, 인권위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한다. 보건당국이 발간한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집을 보면 국내 정신병원에는 모두 8만462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 가운데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한 환자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 돼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강제입원이 허용된다”면서 “부당하게 강제 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하더라도 병원 문 앞에서 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회전문입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상고법원 도입' 범법조계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 100人 반대 선언 '대법관을 증원해야'
16·20일 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설치 논의

사법서비스 향상과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범법조계의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의견은 같지만 상고법원 설치로 사건 심리 충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찬성 측과 대법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테이블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변호사들에 이어 법학자들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관결이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법학자들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고 서울·인천·제주 등 지방변호사회는 찬성하는 등 입장은 제각각이다.

이날 법학자 100명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언급한 반대의 핵심은 '국민 부담 가중'과 '위헌 여부 가능성' 등이다. 법학자 100명은 "상고법원 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과 주체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내용의 헌법 101조 2항을 들어 해당 법안이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에 불과해 최종심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이 주장과 관련,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충실한 사건 심리가 가능하고, 이것이 곧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향상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을 주장하며 찬반이 나뉜 셈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4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과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현재 ▲외부 의견 반영을 위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도입 ▲상고법원 판사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조직으로 편입 ▲재판연구관은 대법 재판연구관과 공동 연구키로 하는 대안 등을 모색 중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구속됐다고 유죄는 아니지만 기소 전 합의해야 고통 최소화

생활 법률

간혹 혹자들은 누가 구속이 되면 죄가 있어서인 줄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고심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보고 있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엔 범죄자 신분도 아닌데 검찰은 왜 구속을 할까. 이유는 사안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검찰 멋대로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판단한다. 심문이 열리면 영장전담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 심문기일엔 검사와 변호인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엔 영장전담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당일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늦어도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기소가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혹여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게 억울하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다시 한 번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피해 금액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면 유리한데 늦어도 기소 전에 해야 된다.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면하게 된 경우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뿐이지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法 "차영 아들, 조희준씨 친자로 인정"

<前 민주당 대변인> <前 국민일보 회장>

법원이 차영(53·사진)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자녀를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또 차씨는 "조씨가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고,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을 인정한다"며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홍원 기자 hong@

'매머드 복제기술' 놓고 황우석 – 박세필 법정 싸움

매머드 복제 핵심기술 소유권을 놓고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와 황우석(사진)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지난달 중순쯤 박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2년 황 박사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 얼음과 땅속에 묻힌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작업을 성공하지 못한 황 박사팀은 국내외 유명동물복제연구팀에 러시아산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박 교수팀(정 교수, 김 대표)이 참여했다.

결국 박 교수팀은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내고 분화시키는데 성공해 매머드 복제의 난제를 풀게 됐다.

이에 박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었고, 연구팀의 독보적인 세포배양 기술이 있었다"며 "이는 양측의 공동 연구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박사는 냉동 매머드 조직 소유권이 분명하고, 자신이 세포배양 연구를 박 교수팀에게 줬으므로 당연히 연구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조율되지 않자 황 박사는 박 교수팀을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정 교수와 김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원 기자

D램 산업 넘보는 中… 삼성 반도체 초긴장

쯔광그룹의 마이크론 인수시 추격 시간 문제

중국 반도체 기업 쯔광그룹의 움직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내 최대 반도체회사인 쯔광그룹이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국영기업 쯔광그룹이 미국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쯔광그룹이 마이크론 주식 한주당 21 달러씩 총 230억 달러를 인수가격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업체인 징둥팡도 D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을 실제 인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호시탐탐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에겐 위협요인이다. 중국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성장 가치가 있는 산업분야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미국의 애플과 중국의 샤오미에 잠식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중국에 추격당할 경우 삼성전자의 위상까지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반도체 시장 진출을 노리는 까닭은 연간 22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해 쓰는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지만 자국에는 생산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반도체 생산라인을 설치해 D램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

삼성전자의 D램 모듈. /삼성전자 제공

만약 중국 쯔광그룹이 마이크론을 인수할 경우 삼성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을 투입해 반도체 사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단일 공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6000억원을 들여 평택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다. 추가 설비투자와 라인증설에 적어도 10조원을 더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질적인 위협요소는 전세계 PC 제조업이 쇠퇴일로를 겪으면서 PC용 D램 메모리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3일 D램 가격 지표가 되는 DDR3 4Gb 제품 현물 가격은 개당 평균 2.55 달러다. 올해 초 DDR3 4Gb 개당 가격이 3.68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연초 대비 30.7%나 하락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으로 반도체 시장을 잠식해 '치킨게임'을 벌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D램을 중점 육성 과제로 꼽고 IC 산업투자 기금 1200억 위안(한화 약 2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마이크론을 인수하면 중국이 단숨에 국내 업체들을 추격할 수 있으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쯔광그룹이 인수에 나선 미국의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 D램생산기업으로 현재 전세계 시장의 약 20~25%를 차지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신형 K5, 월 8000대 이상 팔겠다"

기아자동차 신차 발표

디자인 2종·엔진 5종
선택 폭 다양화 시도
내년 6만대 판매 목표

"신형 K5를 연말까지 매월 8000대 이상 판매할 것이다. 내년에는 연 6만대 판매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확대하겠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형 K5 출시 행사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기아차는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연내에 신형 K5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 사장은 "엔저와 유로화 약세,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판촉 강화 등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아차는 K5와 스포티지 등 볼륨모델 신차로 올해 사업계획인 내수 48만대, 해외 267만대 등 총 315만대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세단 시장은 국내외 브랜드의 경쟁이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폭을 제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2가지 디자인으로 출시했다"며 "K5 SX(스포티 익스트림)와 MX(모던 익스트림)의 판매비중은 각각 60%, 40%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최근 출시된 쏘나타와의 판매 간섭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형세단은 중후함, 무난함이 콘셉트였지만 이번 신형 K5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해 젊은 세대까지 겨냥했다"며 "이처럼 쏘나타와 K5는 각기 다른 콘셉트로 판매될 것이고 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K5의 선택폭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레저용차량(RV)의 수요가 증가해 세단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세단에서 등 돌리고 있는 고객들을 K5가 끌어들일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사전계약을 실시한 K5는 3주간 총 8500여대가 계약됐다. 모델별로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1.7 디젤과 1.6 터보의 비중도 30% 이상 차지했다.

이날 출시된 신형 K5는 2세대 모델로 기아차가 45개월간 4900억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2개의 얼굴(디자인), 5가지 심장(엔진)'을 갖춰 출시됐다.

엔진은 누우 2.0 CVVL 가솔린, U2 1.7 디젤, 감마 1.6 GDi 가솔린 터보, 세타Ⅱ 2.0 가솔린 터보, 누우 2.0 LPi 등 총 5개다.

누우 2.0 CVVL 엔진의 경우 최고출력 168마력, 최대토크 20.5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공인연비는 12.6km/ℓ이다.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고속 주행이나 급제동시 차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등 다양한 사양이 탑재됐다. 가격은 2245만~3125만원 대에 책정됐다.

/정용기 기자 yonggi@

관세청, 면세점 심사 유출 의혹 감사

한국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8~10일 심사현장에서 정보가 나갈 소지가 있었는지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시내 면세점 사업자 공식 발표 당일 서울 대형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오전 10시를 전후해 상승 제한폭인 30%까지 급등하는 등 낙찰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이와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 동원된 자체 지원인력들을 대상으로 사전 유출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유출 의혹과 관련한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수거해 심사위원과 지원인력의 동선, 심사위원 객실 내선 전화의 연수원 전화 교환을 통한 외부 연결, 심사위원의 채점표를 합산하기 위해 동원된 관세청 노트북의 외부 이메일 발송 흔적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장 이돈현 관세청 차장.

관세청 내부에서는 철통보안 속에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자체 감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었지만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라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10일 심사결과 발표 현장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됐고, 심사결과의 윤곽이 오후 4시께 드러났기 때문에 유출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상길 기자 sweatsk@

항공株, 메르스 악재 딛고 다시 날개 펴나

"사스 충격보다 약해" 항공수요 회복 기대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제유가도 약세 '호재'

| 마켓인사이트 |

'항공주'가 메르스 악재를 딛고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저유가 기대감이 번지면서 항공주가 그 혜택을 누릴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 가뜩이나 공급 초과 상태인 원유 시장에 이란 물량까지 풀려 유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핵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란 원유 공급이 단기적으로 급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선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전일대비 1.89% 오른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이날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합권에 머물렀다.

증권가에서도 "항공주가 메르스 악재 해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본격적인 반등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재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항공여객 감소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사스나 신종플루 등 과거 사례를 보면 사라지는 수요가 아니라 중장기 이연 수요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이후 안정적인 항공수요 확보가 예상된다고 송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확장과 항공사별 대규모 항공기 투자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도 높다"면서 업종 최선호주로 '대한항공'을 추천했다.

송 연구원은 "대한항공 주가는 2분기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측면에서 저평가 국면"이라며 "지난 7일 종가 기준 2015년, 2016년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13.2배, 7.0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1.2배, 1.0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사스의 사례로 미뤄볼 때 국내 항공주 주가도 실적에 선행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주의 주가는 탑승객 수와 탑승률 등 실적 데이터에 앞서 완만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항공업계가 메르스로부터 받는 충격이 사스 발생 당시의 충격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주가에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항공 업황의 펀더멘털(기초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항공주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유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2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41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4000원, 100억원으로 추정돼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연구원은 "다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항공주에 대해 재차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이란·중국 호재에도 코스피 게걸음

코스피가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과 중국 경제지표 호조 등 대외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설 등으로 급락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68포인트(0.66%) 오른 2072.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04억원, 2300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2891억원 내던지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장 초반 글로벌증시 상승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는 2080선을 넘봤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대 손실 은폐 의혹과 워크아웃설 등으로 하한가에 진입하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강보합권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 며 8750원에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상승업종이 우세했다. 비금속광물(4.47%), 건설업(2.88%) 등이 강세였고 화학, 증권, 섬유의복 등도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대우조선 워크아웃 소식과 관련해 은행이 4.69% 크게 떨어졌고 금융업도 1.23%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상승종목이 많았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SK텔레콤 등은 강보합 마감했고 신한지주(-3.79%), KB금융(-3.83%), 하나금융지주(-7.62%), 우리은행(-5.50%) 등은 약세였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4.47포인트(0.59%) 오른 761.59포인트로 4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억원, 523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99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5.65%), 제약(2.06%), 일반전기전자(2.00%) 등이 올랐고 디지털컨텐츠, 금융, 섬유의류 등은 1%대에서 하락했다.

시총 상위종목 등락은 갈렸다. 셀트리온이 6.27%로 크게 올랐고 동서,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다음카카오(-1.81%), CJ E&M(-1.93%), 파라다이스(-1.17%), 로엔(-0.96%), 산성앨엔에스(-0.69%) 등은 내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원(0.09%) 오른 1143.60원을 기록했다.

/김보배 기자

대우조선株 '빅배스+워크아웃설'에 추락

금감원, 회계감리 착수 검토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논의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손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에 '빅배스(과거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는 것)'를 단행하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실 은폐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계감리를 검토하는 한편 채권단은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상황 결과에 따라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 실적에 2조원대의 과거 손실을 반영한 것과 함께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기에 손실을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 대우조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30%(3750원)까지 떨어진 87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한조선해양이 1만원 선을 내준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장 초반 전날보다 12% 내린 1만1000원으로 하락 출발했다. 여기에 거래 손실 은폐 의혹,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설 등에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10시15분 하한가를 기록했다.

◆2Q 영업손실 최대 3조원 전망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발생한 2조원 가량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31.5%를 보유한 산업은행과 12.5%를 보유한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숨겼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채권단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손실을 반영할 경우 2분기 영업손실이 최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손실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설계 변경으로 공정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들인 것이 주효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6000억원에 수주했지만 건조기간이 평균 10개월~1년 가량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구조 개선 검토 중"

국내 대형 조선 3사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래트 사업으로 이미 조 단위의 손실을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1830억원에 그쳤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711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발표했는데 대우조선은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실사과정에서 해양플랜트 손실이 파악돼 2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이라며 빅베스를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그동안 손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한국거래소의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설 또는 워크아웃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은행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배 기자 bobae@

은행권, 하반기 '영업력 강화' 고삐

대규모 인사이동·조직개편으로 전력 보강 나서
계좌이동제·인터넷銀 등 판도변화에 승부 전략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기업은행 등은 하반기 워크샵과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실시 등에 따른 보강인사와 저금리·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경영전략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과 인터넷은행 출범 등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환경을 면밀히 분석, 영업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 은행장들 "영업점 재정비·고객관리 강화"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지난 3일 '2015년 하반기 워크샵'을 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임직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조 행장은 "하반기 금융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와 경영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환경 변화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비해 기민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영업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하게 고객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외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응하고 강한 영업력을 발휘하기 위해 'G.P.S. Speed-up(글로벌 마인드·플랫폼·대응 전략)'관점에서 제도와 프로세스 등 조직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하반기에도 지속하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리테일 부문에 있는 내부통제팀을 기업 부문에도 새롭게 꾸렸다.

이들은 사업그룹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한은행은 또 자점 검사 효율성 제고와 전직원 대상 불시 명령 휴가 실시로 일선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내부통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영업점 운영체계 재정비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행장은 7월 정기 조회사에서 "금융시장의 격변기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고객 중심, 현장 중심의 경영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단순 창구 고객의 대기시간은 줄이고 대출 등 긴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직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창구 인력을 재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점주권 특성에 따른 ▲영업점 체제 개편 ▲창구 인력 강화 및 재배치 ▲워크 다이어트(Work-diet) ▲창구 레이아웃(Lay-out) 개선 ▲상담전화 유입량 감소 노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 행장은 "현재 33개 지역본부는 고객의 실제 생활권에 기반을 둔 지역별 거점 중심 영업망으로 재편성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1047개 영업점은 점주권 환경과 고객기반에 특화된 영업망 체계로 전환해 능동적인 방식으로 고객밀착 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일 열린 KB금융그룹 워크숍에서 재확인됐다.

'하나의 그룹, 하나의 KB(ONE FIRM! ONE KB!)', '준비하자! 100년 KB!'라는 슬로건 아래 치뤄진 워크숍에서 KB금융은 ▲여신포트폴리오 최적화 ▲Fin-tech의 전략적 활용 ▲채널 최적화 등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 민영화·은행 통합 등 은행별 과제 '집중'

여름인사도 눈에 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임직원 1800여명에 대해 '원샷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행장과 지역본부장급이 대거 발탁됐으며 하반기 역대 최대규모 승진이 이뤄졌다.

다만 부점장급 이동 최소화로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권선주 행장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저성장시대 수익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와 해외진출, 인프라금융을 확대하는 조직개편도 병행됐다.

특히 스마트금융부 내 핀테크사업팀은 핀테크사업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은 민영화와 은행통합 등 각자 산적한 과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농협은행, 은퇴설계 특화지점 'All100 플랜 라운지' 개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15일 은퇴설계 특화지점인 중구 통일로 본점 영업부에 개설된 ALL100플랜 라운지를 방문해 은퇴설계 상담 후 'ALL100플랜 전용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하나·외환銀 통합추진위원회 20일 출범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을 담당할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이르면 20일 출범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오는 20일 통추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은행 통합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추위의 산하 기구는 하나·외환은행 임원들로 이뤄진 통합추진협의회(통추협)와 실무를 담당하는 통합추진단(통추단), 브랜드선정협의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비롯해 하나·외환은행 인사 4명과 하나금융지주 인사 3명 등 7명의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합은행명을 결정하고 하나·외환은행 통합은행장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통합은행장 최종 후보는 사외이사 3명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참여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르면 내달 중순쯤 선정된다.

/백아란 기자

캠코, 부산대서 청년 취업특강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5일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년층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복잡(Job)이 취업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캠코의 현지화 계획의 하나로, 청년 구직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기반을 둔 공기업 채용 방식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강의는 'NCS를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민지 기자

조용병 "여성리더, 전문성 갖춰 시너지 창출해야"

신한은행 간담회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종로 AW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CEO와 여성리더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장은 여성 리더 그룹 51명과 만나 영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경영방침과 당행이 바라는 여성 리더들의 인재상에 대해 강의했다.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앞줄 중앙)이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리더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조 행장은 "여성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도록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여성인력들이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기업, CIB, 글로벌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춰 후배 여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은행에서 여성 리더의 역할에 대한 CEO 특강과 신한 가족이 꾸미는 클래식 공연과 갈라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백아란 기자

테딘 리조트, 워터파크 무제한 회원권 출시

천안 테딘 리조트에서 온 가족이 탄산 온천 워터파크를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가족 회원권을 출시했다.

입회금액은 25평형이 960만원이다. 4인 가족이 2년간 워터파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3년째부터는 70%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는다. 또 동반인도 40% 할인이 가능하다. 리조트업계 최초로 가입 후 5년 만기 후에 100% 반환한다.

선착순 20명에게는 가입 즉시 여름휴가 예약을 보장하며, 무료숙박 10매를 지급한다. 2박3일 객실과 3일 동안 4인 가족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천안 외 전국 제휴리조트 11곳도 회원대우로 사용가 능하다. 입회 문의 : 02)543-1177 /박선옥 기자 pso9820@

아파트 만난 '복합단지 오피스텔' 인기

아파트와 함께 조성, 하나의 단지로 인식
주거 쾌적성 확보하고 편의성도 뛰어나

부천 옥길자이, 킨텍스 꿈에그린, 수지e편한세상, 마포한강2차 푸르지오, 광교 힐스테이트 등등. 이들 단지는 계약 3~4일 만에 완판된 오피스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브랜드만 들어선 아파트 같지만 아파트와 함께 복합단지를 이루는 오피스텔의 이름이기도 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와 브랜드를 같이 쓰는 복합단지 오피스텔이 최근 인기다.

건설사들은 오피스텔만 단독으로 짓는 경우 '푸르지오 시티', '오벨리스크' 등 별도의 브랜드를 쓰곤 한다.

그러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단지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단지 내 오피스텔은 '부천 옥길자이' 오피스텔,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 등과 같이 '오피스텔'을 붙여 구분한다.

그렇다보니 수요자들은 오피스텔을 따로 인식하기보다 아파트와 함께 하나의 대단지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한화건설의 '킨텍스 꿈에그린' 복합단지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아닌, '킨텍스 꿈에그린' 자체로 인식하는 식이다.

이들 복합단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를 형성해 주거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또 풍부한 녹지공간은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도 해결된다. 동간 거리가 넓어 조망권이 확보되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는 대신 감가상각이 심해 건물 자체의 가격은 안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복합단지 오피스텔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에도 웃돈이 붙기도 한다.

광교 아이파크 오피스텔 거실.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로 소형아파트와 다름없는 평면을 자랑한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반도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반도유보라4차' 전용면적 59㎡타입의 오피스텔은 프리미엄이 4000만원 이상 붙어 거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의 경우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 오피스텔 하나만 들어가는 것보다 쾌적성이나 편의성이 좋기 마련"이라며 "일반 오피스텔보다 복합단지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아파트와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오피스텔임에도 아파트 같은 평면이 적용되기도 한다. 4베이 구조는 기본이고,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을 선보이며 수요자를 공략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선보인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오피스텔은 84㎡ 단일 면적으로 설계됐다. 같은 단지 아파트의 59A타입과 비슷한 구조로, 침실 3개와 욕실 2개, 다용도실, 안방 드레스룸 등이 들어간다. 일부 타입에는 4베이-3룸과 테라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광교 아이파크' 오피스텔 역시 84㎡로만 구성됐다. 소형아파트처럼 방 3개, 욕실 2개, 안방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등이 들어간다. 전용률도 70%(공급면적 기준)가 넘어 실사용 면적을 높였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현대건설, 안전경영 가속화 현대건설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반기에만 6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LH, 하반기 임대·분양주택 1만6506가구 푼다

수도권에 1만1865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전국 23개 지구에서 총 1만6506가구의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1만1017가구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공공분양주택은 5498가구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약 71%인 1만1865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4641가구를 선보이는 가운데 상반기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대구권역에 1494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 12개 지구(1만1017가구) 가운데 9개 지구(1만176가구)는 리츠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1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 전환할 수 있어 초기자금 없이도 집 장만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60㎡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3인 가구가 473만4603원, 4인 가구가 522만4645원, 5인 이상이 556만26원이다.

다만 신혼부부나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2억1550만원을 넘는 부동산이나 2794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옥 기자 pso9820@

7월 주택경기지수 13.7p 하락

여름 비수기 영향
대구만 0.6p 올라

이 달 주택사업환경지수가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에 공급과잉이 겹친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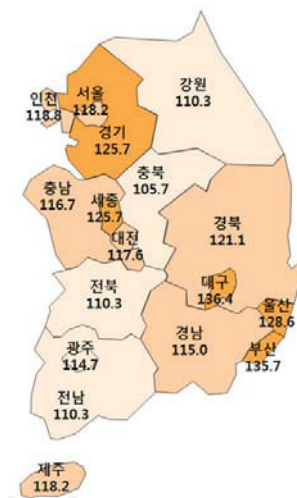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국 전망치가 전달보다 13.7포인트 하락한 112.0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올 들어 계속 유지되던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7월 들어 한풀 꺾인 것이다. 연구원은 이 지수가 100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7월 주택사업환경지수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에서 뒷걸음질쳤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더 커 각각 19.0포인트와 14.0포인트 내린 118.2와 122.2를 기록했다. 지방은 6.2포인트 빠진 119.0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대구만 유일하게 0.6포인트 상승했다. 지수도 136.4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외 부산(135.7), 울산(128.6), 세종(125.7) 등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저치는 충북으로 105.7이었다. 최고 하락 지역은 19.0포인트 빠진 서울(118.2)과 17.4포인트 내린 경북(121.1), 17.1포인트 떨어진 경기(125.7) 순이다.

분양시장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수는 일제히 악화됐다. 분양계획지수는 6.7포인트 하락한 129.3, 분양실적지수는 12.4포인트 뒷걸음질친 126.0로 집계됐다. 미분양이 늘면서 미분양지수는 3.5포인트 오른 62.9를 기록했다.

이로써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는 지난 5월 하락반전된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신규분양 증가, 저금리로 인한 수요 진입 등 하반기에도 분양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물량 해소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전세난·저금리·규제완화로 인한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당분간은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밀어내기식의 과도한 공급과 고분양가가 분양실적에 부담이 되고, 이는 곧 주택사업환경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옥 기자

권오준 회장 "국내 계열사 50% 축소할 것"

포스코, 해외 사업도 30% 감축… 강도 높은 쇄신안
"100% 경쟁 입찰 원칙·4대 비윤리 행위시 즉각 퇴출"

"2017년까지 부실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계열사 50%, 해외사업 30%를 감축하겠다. 경쟁력 없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을 것이고 공정인사·윤리경영·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쇄신안을 단행하겠다."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은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분기 실적과 5대 경영쇄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포스코는 경영환경악화·검찰수사 등의 문제로 창사 이래 최대 경영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쇄신안을 내놓았다.

우선 이 여파는 실적 부진으로 드러났다. 포스코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조1890억원, 영업이익 6863억원, 당기순이익 117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 18.2%, 75.9% 감소했다. 글로벌 철강수요 부진과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포스코는 분석했다. 포스코는 실적 발표 이후 혁신 포스코 2.0 추진계획을 통해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외 상공정의 해외투자는 지양하고 자동차강판 공장, 철강가공서비스센터 등 해외 하공정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포스코는 전했다.

이날 권회장이 내놓은 5대 경영쇄신안은 △사업포트폴리오 재편성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투명한 거래관행 △윤리경영 등이다.

권 회장은 "사업을 철강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계열사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고유기술을 보유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으로 철강, 소재, 에너지, 인프라, 트레이딩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간 5000억원의 비용절감도 추진한다. 경비, 인건비, 외주비, 재료비 등에서 포스코가 2800억원, 계열사가 22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올해 비용 절감 목표는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권 회장은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실명제를 확대하고 실적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외부 역량도 활용해 사업 위험성을 검증하고 성과주의 등을 강화해 투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투자 실패와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퇴직 25명을 포함해 임원 43명은 인사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권 회장은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는 100%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관련 청탁도 원천 차단해 구매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윤리경영도 회사 운영의 최우선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 위반자를 즉각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15일 국내 SUHD TV 판매의 50%를 차지하며, 프리미엄 유통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성 디지털프라자의 강남본점에서 S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 SUHD TV, 디지털프라자서 50% 팔려

55인치 이상 제품 인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 대표 모델인 SUHD TV의 국내 판매량 가운데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통해 팔린 제품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프라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구형TV SUPER 보상판촉'에 힘입어 직전 주 대비 2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삼성전자는 "SUHD TV의 뛰어난 화질을 체험할 수 있는 화질 비교 체험공간을 운영한 것이 고객의 선택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SUHD TV 외에 55인치 이상 대형 TV가 전체 TV 판매의 반 이상을 차지했고 프리미엄 냉장고인 셰프컬렉션의 판매 비중도 다른 유통점보다 디지털프라자에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운 기자 ysw@

지창훈 사장, 요우커 유치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항공, 한국 방문 독려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왼쪽)이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장리쥔 중국청년여행사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이 중국 대형여행사 총재들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관광을 독려하는 협조를 구했다.

지 사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 청년 여행사, 중국 여행사 총사, 씨 트립 등 중국의 3개 대형 여행사를 방문해 총재·부총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국 청년 여행사, 중국 여행사 총사, 중국 강휘 여행사, 중신 여행사 등 중국 4개 대형 여행사 총재와 부총재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국관광 수요 유치에 힘썼다.

지 사장은 "한국 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여행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전자, '프리싱크' 탑재 게임 특화모니터 출시

LG전자가 게임에 특화된 모니터를 국내시장에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모니터는 울트라HD(3840×2160) 해상도를 적용한 27형 모니터 '27MU67'과 21대9 화면비의 34형 모니터 '34UM57' 2종이다.

LG전자는 AMD사의 프리싱크(FreeSync) 기술을 신제품 2종에 탑재했다. 이 기술은 게임을 실행할 때 PC 그래픽카드와 모니터 간의 데이터 처리속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화면 깨짐, 끊김 등을 없애 준다.

또 LG전자는 어두운 색을 더 선명하게 구별해 주는 '블랙 스태블라이저(Black Stabilizer)' 기능,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게임 장르에 맞게 그래픽을 최적화시켜 주는 핫키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장착했다.

/조한진 기자 hjc@

삼성전자 냉장고, 伊 소비자 전문 잡지서 1위

삼성전자는 자사 2도어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BMF·Bottom Mounted Freezer)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비자 전문 잡지인 '알트로컨슈모(Altroconsumo)'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알트로컨슈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초 출시한 삼성전자 BMF 냉장고(모델명 RB37J5349SL)를 총 69개 모델 중 1위로 평가하며 '최고 평가 모델(Migliore del Test)'에 선정했다.

이 잡지는 삼성전자 BMF 냉장고의 △냉장실·냉동실 정온 유지 △냉동 속도 △에너지 효율 △소음 및 진동 등에 각각 별 다섯개 만점을 부여했고 △냉각 능력 △단열 △사용 편리성 등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조한진 기자

제주항공, 夏 휴가철 베트남 다낭·하노이 운항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도시인 다낭과 수도 하노이 신규노선을 운항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다낭에 14회에 걸쳐 전세기를 투입한다.

다낭 노선은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며, 다낭에서는 오후 10시에 출발해 오전 4시 30분 인천에 도착한다.

하노이 노선은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7회에 걸쳐 전세기를 띄운다.

하노이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5분 출발하며, 하노이 공항에서는 다음날 오전 1시 10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전 7시 15분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이정필 기자

"산업수도 울산, 창조경제로 재도약 이끈다"

현대重, 울산광역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조선해양플랜트·의료자동화 등 신산업 육성나서

현대중공업과 울산광역시는 15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주철, 이하 혁신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센터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인 울산의 강점과 현대중공업의 역량을 결합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재도약 지원 등 4개 항목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첨단 의료자동화 신산업 육성 △민간창업보육기관과 혁신센터 간 플랫폼 연계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등이 그것이다.

혁신센터는 창조마루와 융합마루 두 곳으로 총 1828㎡(554평) 규모다.

울산대학교 공학5호관에 자리잡은 창조마루는 1221㎡(370평) 규모다.

창업지식을 공유하고 제품 개발과 시제품을 제작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울산대 인근의 울산벤처빌딩에 있는 융합마루는 607㎡(184평) 면적에 멘토링, 금융서비스와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창업 지원과 아이디어 발현 공간이다.

현대중공업과 울산광역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재도약과 의료서비스자동화 신산업 창출,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 투·융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5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오른쪽 두 번째), 김기현 울산시장(오른쪽 네 번째)이 신현수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장(맨 오른쪽)으로부터 스마트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혁신센터는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국내 빅3 조선사와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등 산·학·연이 힘을 모아 친환경·고효율 차세대 선박인 '에코십(Eco Ship)'과 '스마트십(Smart Ship)'을 공동 개발하고,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주 금액의 50% 이상을 기자재 비용으로 해외업체에 지불하는 해양플랜트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재 국산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국산화 수요와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연계하고, 중소 기자재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또한 혁신센터는 ICT와 IoT(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중소 조선업체의 생산공정을 혁신할 수 있는 '스마트야드'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을 분석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분석 플랫폼'을 센터에 설치하고 공정분석, 인력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혁신센터의 출범으로 울산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뿐 아니라 의료자동화, 3D프린팅 등과 관련한 기술력 있고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침체에 빠진 울산의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유인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왼쪽)과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이 한국산업 판매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판매부분 1위를 달성해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 판매서비스 품질 3년 연속 1위

한국지엠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15 한국산업 판매서비스 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판매부문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전날 부평 본사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마크 코모 영업·서비스·마케팅 부사장을 비롯한 한국지엠 임직원과 유인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년 연속 1위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총 27개 산업 내 113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단이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해 서비스 이행률을 지수로 환산한 것이다.

조사는 미스터리 쇼핑(감독 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엠은 고객접점부문 내 11개 항목 중 인사, 친절성, 업무지식, 시설관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 총 95점으로 국내 완성차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BMW, 韓 진출 20주년 한정판 에디션 출시

총 5종, 20대 한정생산
20주년 상징 배지 추가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한국진출 2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에디션 모델을 15일 출시했다.

한정판 에디션은 120d M 스포츠패키지, 320d M 퍼포먼스, 530d xDrive M 스포츠패키지, 뉴 640d 그란쿠페 xDrive M 스포츠패키지, X5 xDrive30d M 스포츠패키지 등 5종이다.

뉴 640d 그란쿠페 xDrive M 스포츠패키지 모델은 이번 에디션 모델을 시작으로 새로운 부분변경 모델이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각 모델은 BMW 로고를 상징하는 화이트, 블루, 블랙 색상으로 구성됐다.

M 스포츠패키지와 M 퍼포먼스 등 기존 모델에 특별한 외관과 옵션을 적용함과 동시에 20주년을 상징하는 배지(작은 사진)가 부착돼 한정판 모델이라는 희소성을 갖췄다.

모든 20주년 기념 에디션 모델은 20대만 한정 생산돼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가격은 120d M 스포츠패키지 20주년 에디션 모델이 4690만원, 320d M 퍼포먼스 20주년 에디션이 5590만원, 530d xDrive M 스포츠패키지 20주년 에디션은 9230만원이다. X5 xDrive30d M 스포츠패키지 20주년 에디션과 새롭게 부분변경돼 출시된 뉴 640d 그란쿠페 xDrive M 스포츠패키지 20주년 에디션은 각각 9990만원과 1억257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BMW 코리아는 하반기 3시리즈 부분변경과 7시리즈와 X1의 풀체인지 등 간판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토요타, 고객가족 8월 오토캠핑 전액지원

한국토요타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공식딜러 전시장과 홈페이지 (www.toyota.co.kr)를 통해 가족 오토캠핑 신청을 받는다.

토요타 오토캠핑은 8월 21~23일 △양평관광농원(경기 양평군 옥천면, 서울·경기권 고객) △반디랜드(전북 무주군 설천면, 충청·전라권 고객) △별헤는밤(경남 산청군 신안면, 경상권 고객) 등 3개 오토캠핑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전국 토요타 전시장에서 토요타 모델을 구매, 현재 운행 중인 고객이다.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80가족을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 전액을 토요타가 지원한다.

/이정필 기자

르노삼성, SM시리즈·QM5 특별 판매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SM3, SM5, SM7, QM5 차종의 아트컬렉션II 출시 기념으로 '오디오 북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이달부터 운전자 감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 모델 아트컬렉션II를 판매 중이다.

오디오 북 프로젝트는 아트컬렉션II 모델과 마케팅 활동에 예술적 감성을 더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명 고전 문학작품을 오디오 북으로 제작해 총 1000명을 추첨해 배포한다.

정지은 르노삼성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은 "운전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동차에서 우수 문학작품의 감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오디오 북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르노삼성은 예술적 감성을 더한 차량뿐 아니라 운전자와 차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마케팅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1만1천원 통신 기본요금 폐지해야"

KT새노조·참여연대 등 기본료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여론조사 결과 54%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응답

시민사회단체가 통신사들의 폭리를 규탄하며 '기본요금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본료 폐지 촉구, 인가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넘어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 요금제 폐지를 요구한다"며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반대하는 기본 요금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제 설계 시 포함되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들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7일 실시한 데이터 요금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에 불과했다. 54% 정도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과거에 제기됐던 기본료 징수 목적이 현재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동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서비스 신청 시 별도 설비가 필요없어 유지보수 비용 보전 목적의 기본료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선 망 설비구축에 대한 초기투자비 회수 목적이라고 해도 이미 비용 환수가 끝난 현재 기본료를 징수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사진 왼쪽),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중앙),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오른쪽)이 5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본요금제 폐지와 요금인가제 존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위험성에 대해 조형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장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신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이를 기본료 폐지로 이어간다면 공공성 취지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할인된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캠페인을 열었다.

시민들은 '딸아이 용돈을 늘릴래요', '관리비에 보태 쓸게요', '매달 1만1000원씩 적금할게요' 등의 의견을 써붙이며 캠페인에 호응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인텔과 5G 기술 공동 연구개발 맞손

MWC 상하이 2015

5G 단말 개발·성능 검증

SK텔레콤과 인텔이 5G 기술 공동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상하이 2015'에서 반도체 칩 제조사인 인텔과 5G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날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계기로 5G 단말 개발에 선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양사는 5G 상용화가 유력한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해당 주파수 기반으로 5G 단말 개발 과 성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무선랜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술인 '앵커-부스터 셀(Anchor-Booster Cell)' ▲기지국의 데이터 송·수신 용량을 대폭 향상시키는 다중 안테나 기술인 '매시브미모(Massive MIMO)' ▲트래픽 수용에 따라 자유자재로 주파수를 배분할 수 있는 '5G 클라우드 가상화 기지국' 등 5G 핵심기술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앵커-부스터 셀은 LTE 망에 차세대 무선랜인 '와이기그'를 기폭제와 보조망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앵커-부스터 셀 환경하에서 기지국제어 및 음성 통화는 LTE 망을 활용하고, 대용량 다운로드는 와이기그를 활용할 수 있다.

와이기그는 60기가헤르츠(GHz) 대역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술로 현재 무선랜 기술인 와이파이 보다 10배 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풀HD(4~10기가바이트)급 영화 한편을 다운받는데 1~2초가 걸린다.

SK텔레콤은 인텔과 연내 분당에 위치한 종합기술원에서 다양한 5G 기술의 성능검증과 시연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정문경 기자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이동훈 신임 대표 취임 스마일게이트그룹은 게임 퍼블리싱·플랫폼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이하 메가포트)의 신임 대표로 이동훈 전 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4일에 열린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토브 사업설명회에서 이동훈 신임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SKT 'UO브랜드' 中 진출 박차

SK텔레콤이 자사의 라이프웨어 브랜드 '유나이티드 오브젝트(UO)'를 중국에 상표출원하고, 대형 유통회사와 UO 브랜드 제품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SK텔레콤은 지난 5월 UO 브랜드를 론칭한 후 UO스마트빔 레이저, UO링키지, UO스마트빔2 등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라이프웨어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15(MWC 상하이 2015)를 계기로 SK텔레콤은 중국 내 애플 프리미엄 유통사인 '드래곤스타'와 매장내 UO스마트빔 전시와 판매 대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15일 체결했다. 드래곤스타는 중국 내 인지도가 높고,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전자상회와의 포괄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이날 체결하고 UO 브랜드 제품의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전자상회는 1988년 설립된 중국 정부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전자제조회사 및 유통회사의 연합 단체로 중국 내 전자제조사 및 유통회사 4000개사가 가입된 협회다.

또한 SK텔레콤은 차이나텔레콤 자유무역지구분소와 UO브랜드 제품의 중국 내 공동 마케팅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차이나텔레콤자유무역지구분소는 차이나텔레콤의 국제 업무에 특화된 사무소로, SK텔레콤은 한중 FTA로 통신분야의 협력이 가능해진 이후 중국의 통신사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문경 기자

LGU+, VoLTE 공헌상 수상

MWC 상하이 2015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서

LG유플러스는 15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개최한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Global Mobile Awards)'에서 LTE 기반 음성통화 VoLTE 공헌상을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VoLTE 서비스를 LTE 고객에게 제공해 700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HD Voice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VoLTE 사업자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VoLTE 서비스의 핵심인 HD급 음성은 물론, 인터넷이나 동영상 시청 중에 전화가 걸려와도 그대로 통화가 가능한 All-IP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유와(Uwa)'도 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세계 최대 성능의 클라우드 DU(Digital Unit) 자원 공유 기술, 이종(異種)기지국간 CA커버리지 확대 기술 등을 상용화하며 Vo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본 KDDI사와의 VoLTE 로밍에 성공하며 글로벌 VoLTE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 부사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MWC에서 LG유플러스의 뛰어난 네트워크 경쟁력이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장이 공로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면세점 낙찰 업체 '요우커 모시기' 총력

HDC·한화·하나투어 등 춘절 이전 개장 추진
한류·관광·문화 등 원스톱 쇼핑 면세점 조성

최근 신규 면세점으로 낙찰된 사업자들의 열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모시기' 경쟁이 시작됐다.

업체들은 한류·관광·문화·쇼핑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면세점 조성을 내세워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중 7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요우커를 주요 타깃으로 춘절기간인 내년 2월 이전 면세점 개장 완료를 추진 중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아이파크몰 내부에는 2000명 수용 가능한 한류 공연장과 관광 홍보관, 식당 등을 조성한다. 또 한강과 이태원·이슬람사원·국립중앙박물관·전자상가 등 관광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철도망을 따라 강원·충청·호남·영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매장 내 3700㎡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전용관을 두고 K-Cos(국산화장품) 존·K-Bag(국산 핸드백) 거리·지자체 특산품 전용 매장·한국식품 명인관·한국 수산물 코너·코레일 특화 매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는 한강과 여의도를 활용한 신규 관광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이 일환으로 황금색을 선호하는 중국인에게 '골드바'로 회자되는 63빌딩 자체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초기 2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면세점과 63빌딩 내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내부 관광시설을 새 단장하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반영된 전시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쿠아리움 리뉴얼 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유람선 프로그램·노량진수산 시장 투어·한류스타 초청 콘서트·여의도 봄꽃 축제·에코/힐링 투어·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서울세계불꽃축제 등을 진행한다.

사진 시계 방향으로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제주관광공사, SM면세점.

한강유람선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한식 정찬 크루즈·크루즈 웨딩·비즈니스 크루즈 등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 63빌딩 관광명소와 한강 유람선 함께 이용 가능한 티켓을 판매할 계획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투어는 63빌딩·타 여의도 일대 지역과 연계되는 셔틀 버스를 신설하고 한류스타와의 만남 정례화, 인근 병원 프로모션 등을 연계한다. 이외에도 지자체·예술가와의 협의를 통한 문래창작촌 시설 정비 프로그램인 문래 창작촌과 여의도 일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MICE 관광 상품 패키지를 진행한다.

하나투어는 '한류'를 키워드로 한 '면세점 자체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연간 500만명 이상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투어의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와 협력사인iHQ, 큐브엔터테인먼트 등과 한류 마케팅을 선보인다.

지난달 18일 IHQ·큐브엔터테인먼트와 '한류관광 콘텐츠 활성화·스타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 한류스타의 이름을 건 스타상품을 판매하고 스타의 일상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타라운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8월과 12월 두 차례 면세점 관련 추가 인력 채용도 계획 중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8만여명, 2013년 181만여명, 지난해 285만여명 등 해마다 급증하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도내 신라·롯데면세점과 협의체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여행사에 주는 송객 수수료 전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양성화하도록 하고, 음성적 수수료를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을 찾는 비율은 2010년 21.8%에서 지난해 41.4%로 19.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명동(42.4%) 다음으로 시내면세점 방문 비율이 높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기(氣) 세일 행사에 기받으러 오세요"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1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선식품·가공식품·여름의류 및 가전 등 다양한 여름 시즌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기(氣) 세일'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홈플러스 제공

GS샵 '자취박스' 1000개 한정판매

모바일 GS샵(대표 허태수)이 1인 가구를 위한 '자취박스'를 15일 오후 2시부터 1000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자취박스는 '자취의 정석'박스와 '엄마의 마음' 박스 두 가지로 구성됐다.

CJ제일제당과 제휴를 통해 총 4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햇반·스팸·사골우거지국·연어캔통조림·블루베리 음료·쁘띠첼 망고 등 3만5000원 상당의 제품이 담겨있다. 가격은 9800원이다. /김성현 기자

티몬, 생필품 마켓 PC·아이폰 서비스

티몬(대표 신현성)은 지난달 오픈한 생필품 마켓인 '티몬마트' 서비스를 15일 오후부터 PC와 아이폰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티몬마트의 서비스명도 '슈퍼마트'로 변경한다.

티몬은 슈퍼마트 명칭 변경과 함께 마트의 주요 카테고리인 생활·뷰티·식품 카테고리 대상으로 '럭키 7월' 프로모션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식품 3만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천원 쿠폰3장 등 총 할인금액 3만9000원에 달하는 9장의 쿠폰을 제공한다. /김성현 기자

홈플러스, 기업가치 하락 중… 매각 가속화

영국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가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의 매각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IB(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사모펀드가 좋아하는 가격에 매물가가 거론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각을 더 빨리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업계에 따르면 내달 17일 사모펀드 5곳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론된 5곳의 사모펀드는 KRR, 칼라일, 골드만삭스 PIA, MBK파트너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다.

앞서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수익창출을 위한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경우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노조 경기본부 김동우 사무국장은 "당장 내일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곳의 경기 홈플러스 점포에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노조 본부는 "이달 17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가지고 23일 본부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까지 가세한 노조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홈플러스의 자산 가치는 7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최대 10조원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실적 부진, 의도적인 장부가치 훼손, 올 초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각종 소송문제 등으로 시장의 평가는 좋지 않다. 더욱이 노사 갈등까지 심화되며 홈플러스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빠진 테스코의 1차적인 목표는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는 입장에서 당장의 내부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요리비법 TV 방영에 통조림 매출 14배 껑충

꽁치·고등어 통조림 등 G마켓 검색어 순위 올라

꽁치·고등어 등 생선 통조림을 활용한 요리비법이 TV에 방영되며 온라인몰에서의 생선 통조림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

15일 G마켓(대표 변광윤)에 따르면 해당 방송 직후인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꽁치·고등어 통조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1332%)이상 급증했다. 방송 직전 일주일과 비교해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꽁치·고등어 통조림은 13일 기준 베스트셀러 10위에 랭크됐다. G마켓 가공식품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13위를 했다.

생선 통조림이 인기를 끌자 참치·깻잎·골뱅이 등 다른 통조림 식품들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치 캔과 햄 캔의 판매는 각각 전년 대비 38%씩 증가했다. 골뱅이·번데기 캔은 64%증가했다. 깻잎·장조림 캔 판매는 전년대비 264%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통조림 식품군 전체가 전년 대비 57%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김성현 기자

소망화장품 재기 노린다

OEM·ODM 생산 본격 확대 中 등 해외 진출도 청신호

1세대 화장품인 소망화장품(대표 최백규)이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사업 추진과 해외 진출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망화장품은 현재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자사 제품 생산 공장에서 OEM·ODM 제품을 만들고 있다.

1995년 준공된 인천 공장은 연건평 5624평 규모로 연 생산량은 약 6500만 개다. 현재 이곳에서 30여 개 브랜드 120여 품목을 OEM·ODM으로 생산하고 있다.

소망화장품은 지난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OEM·ODM 사업을 준비해왔다. 올해를 본격적인 원년으로 삼고 생산량과 영업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OEM·ODM 사업은 매출 목표를 정할 만큼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며 "R&D(연구개발)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안하고 여유 생산을 통한 캐파(CAPA)를 확보해 영업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세대 화장품 업체들이 불황에 제조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소망화장품 역시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며 "생산 설비와 R&D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통성과 품질을 차별점으로 내세운다면 시장 안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4년 설립된 소망화장품은 과거 '꽃을 든 남자'와 같은 대표 브랜드를 출시해 1세대 화장품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브랜드숍과 해외 브랜드에 밀리며 2011년 KT&G에 팔렸다.

인수 후에도 매출은 줄며 지난해에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총계는 681억원으로 총 자산 555억원을 넘어섰다. 이 기간 순손실만 128억원을 기록한 반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 줄었다. 브랜드숍 ONL(오늘)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OEM·ODM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것이다.

소망화장품은 올 초 사옥을 목동에서 봉천동 보라매 대교타워로 이전하고 제2 도약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꽃을든 남자 우유 바디'와 같은 히트상품을 내는 등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에는 다나한 기초화장품과 시트 마스크가 중국 3대 전자 상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 징둥에 입점됐다.

대한화장품 수탁제조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OEM·ODM 시장 규모는 1조원 대로 추산되며 약 200여 개 업체들이 있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망화장품과 같이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면 진입 장벽도 높지 않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해 OEM·ODM 전문 회사 비오코스를 설립해 올해 전년 대비 매출 500%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행복돼지로 만든 '덴마크햄'으로 햄 볶아요" 동원F&B(대표 박성칠)가 15일 '덴마크햄' 출시를 기념해 서울 성북동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와 함께 사진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토마스 리만 대사가 일일 셰프가 돼 한국 어린이에게 '덴마크햄'으로 만든 건강한 햄 요리를 알려주고 대접한다는 내용이다. /동원F&B 제공

농식품 수출… 엔저 영향에 전년비 0.6%↓

상반기 30억 달러 기록 농축산부 보완대책 발표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 수출이 줄어든 데다 메르스로 홍콩·대만 등 중화권의 수출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상반기 농식품 수출 동향과 올해 수출목표 77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하반기 수출 확대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30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수출 물량도 174만6700톤으로 지난해보다 2.1% 줄었다.

국가별로는 일본(9.6%)과 홍콩(7.7%)·아세안(7.2%)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11.5%)과 미국(4.6%)·EU(18.9%) 수출은 늘었다.

일본의 농식품 수출액은 5억9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6% 줄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김치의 경우 저염식 선호 증가로 일본 김치시장이 축소되고 일본 업체의 김치 신제품 출시에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또한 지속적인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유럽연합(EU)의 상반기 수출은 1억52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증가했다. 제품의 현지화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커피조제품김치·새송이 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농진청·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를 구성해 매달 현장에서 국가별·품목별 수출실적과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액세서리 브랜드 '라베노마'·'일모' 론칭

제일모직 국내 시장 공략

제일모직(패션부문 대표 윤주화)은 15일 여성 액세서리 브랜드 '라베노바'와 유러피안 감성의 가방과 구두 등 피혁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셀렉트샵 브랜드 '일모'를 선보이고 국내 액세서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이태리 문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기반으로 라바노바를 글로벌 여성 액세서리 브랜드로 키울 예정이다.

일모는 가방·구두 등 피혁소재의 남녀 액세서리 상품을 함께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셀렉트숍으로 포지셔닝시키고 전문 매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LG생건, 캐시캣 새 모델 '서효림' 발탁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배우 서효림을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브랜드 '캐시캣'의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서효림이 메이크업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또렷한 이목구비와 이국적인 마스크가 세련된 감성을 전달하는 캐시캣 브랜드 컨셉트와 잘 부합하고, 차세대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캐시캣의 새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효림은 8월부터 캐시캣 모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캐시캣은 쉽고 빠르게 세련된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싶은 여성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컬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수정 기자

풀무원 '김 신품종' 개발… 품종보호권 획득

방사무늬 김 '풀무해심'

풀무원(대표 남승우)은 자체 개발한 방사무늬김 계통의 김 신품종 '풀무해심(Pulmu-haesim)'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풀무원은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향후 20년간 전 세계 72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국으로부터 풀무해심의 재배와 판매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방사무늬김 계통의 풀무해심은 일반 김에 비해 비린맛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맛과 식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좋아 김 제품화에 적합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은 동아시아 중심의 식용 재료였으나 최근 김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풀무원은 이번 김 신품종 개발이 수출과 판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미 기자

해피바스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개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해피바스가 '해피 이스케이프'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피바스는 올 초부터 '해피바스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진다'는 의미를 지닌 '에브리데이, 해피 모멘트'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선보인 영상 역시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해피바스 제품을 만나면 행복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황 별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김수정 기자

서울여자대학교가 8월 1일 2016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서울여대 제공

2016 수시대비 모의 논술고사 실시

서울여자대학교, 8월 1일 시행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8월 1일 수험생 900명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번 모의논술고사는 수험생들에게 논술고사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온라인 모의논술고사도 동시에 실시돼 지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모든 응시자들에게 채점결과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모의논술고사는 20~23일까지 서울여대 입학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의논술 문항은 실전과 동일하게 ▲제시형 문항 ▲도표형 문항 등 2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어 시험 종료후 논술 해설 특강과 입시 지원전략 특강·일대일 입학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모의논술고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8월 1~3일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박진 입학홍보처장은 "서울여자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에서 논술성적 70%와 학생부교과성적 30%를 합산해 150명을 선발한다"며 "사고력·논리적 이해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9일~14일까지로 2016학년도 논술고사는 인문계·자연계 모두 11월 4일에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여대 입학홍보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wu.ac.kr)나 전화(02-970-5051~4, 02-970-5003~8)로 문의하면 된다. /복현명 기자 hmbok@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

한국관광공사

"위축된 방한수요, 中 국경절까지 회복에 총력"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은 메르스로 멈춰버린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돌려, 오는 10월까지 방한 관광수요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무엇보다도 메르스 우려를 종식시키고 한국관광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해외 언론인을 집중 초청,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리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8월까지 100명 규모의 언론인을 초청, 일본 시장도 100여명으로 구성된 여성기자단 방한취재를 실시한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9개국 50여명의 언론인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여행업계 사장단을 초청해 방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독려한다.

공사는 7월말부터 중화권 주요 여행사 대상 테마상품 기획 초청(180명 규모)을 시작으로, 8~9월에는 중국 주요 여행사 사장단 초청, 일본 10대 여행사 사장단 초청, 동남아 지역에서의 Safe Korea 팸투어, 미국 여행업자 초청 메가팸투어(40명 규모) 등 10월까지 세계 각지에서 총 400여명의 여행업자들을 초청, 방한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MICE 분야에서도 7월~9월 기간 중 MICE 홍보 해외광고와 더불어 MICE 전문 언론인 초청사업이 추진된다. 북경, 방콕, 싱가포르, 라스베가스 등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MICE 전시박람회에도 참가해 한국 매력을 홍보한다. 또한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월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인센티브 로드쇼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관광 홍보를 위해서 8월 중 김포공항 입국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로드쇼를 준비한다.

이어 런던,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도쿄, 자카르타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연관광 로드쇼를 열 계획이다.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중심으로 관광업계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해외 소비자 대상의 대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8월에는 런던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이 개최되며, 9월에는 뉴욕과 중국 광저우, 10월에는 방콕과 도쿄 등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대형 이벤트를 통한 한국 알리기가 집중 전개된다. 이 행사에는 한류스타들도 대거 참여해 해외 한류팬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항공사들과의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는 물론 싱가포르항공, 케세이퍼시픽, 베트남항공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 국가에서 항공사들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 공동마케팅은 무료항공권 증정 이벤트, 무료 수화물 제공, 단체객 특별할인, 국내 면세점, 백화점 등의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의료관광 분야의 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7월중에는 중국인 대학생 서포터즈 그룹인 한유기 등 주한 외국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병원방문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8월엔 전국 1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의료관광대전을 연다.

공사는 10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국제의료관광 컨벤션 개최와 러시아 해외 유명인사를 활용한 한국 의료관광 특화 프로그램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상급 K-팝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K-팝 페스티벌이 8~10월중 3회 열어 자연스럽게 방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1차 K-팝 페스티벌은 오는 8월 초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2015 Summer K-POP Festival' 타이틀로 열릴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대규모 K-팝 페스티벌을 잇따라 개최해 전 세계 한류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모은다.

한편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도 펼쳐진다. 7월 중순부터 CNN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등 주요국가의 현지매체를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과 함께, 음식, 명소, 한류 콘텐츠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내국인 대상으로는 여행심리 회복을 위한 TV 특집프로그램도 제작한다. 8월부터는 국내여행 촉진 광고가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관광공사 이재성 국제관광본부장은 "침체된 방한 관광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이번 100일 작전에 한국관광공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월드버거투어'

롯데월드몰

롯데자산개발(대표 김창권)은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몰 5~6층 하드록카페에서 8월16일까지 전세계 대표 버거를 선보이는 월드버거투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의 '불고기 버거'를 비롯해 미국 '자바라바 버거', 호주 '오지버거' 등이 판매된다. 롯데월드몰은 월드버거와 각국 대표 맥주를 세트 메뉴로 구성해 2만4100~3만4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CJ '더 건강한 브런치 후랑크' 2종 선봬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냉장햄 '더 건강한 브런치 후랑크' 2종을 15일 출시했다.

더 건강한 브런치 후랑크는 고기를 갈지 않고 굵게 썰어 넣어 고기를 씹는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국내산 돼지 뒷다리 살로 만든 '오리지널'과 상하치즈를 넣어 고소한 치즈맛 타입의 '리치치즈' 총 2종으로 구성된다. /정은미기자

강강술래 "보양식 먹고 무더위 이겨내세요"

온라인 쇼핑몰서 한우사골곰탕 5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기력보충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ml·10봉·20인분)를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강강술래 곰탕은 HACCP 인증을 받은 최첨단 위생시설에서 생산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특히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과정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캠핑이나 바캉스 간편식으로도 좋다.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해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 영양간식과 술안주, 캠핑 먹거리로도 잘 어울리는 질질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는 50% 할인된 3만300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구이(520g·4만3000원) 또는 술래양념구이(520g·4만3000원)를 구매하면 한우양념불고기(500g)를 덤으로 증정한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온 가족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ml·10봉·20인분)를 제공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코미디 연기라면 망가질 자신 있죠"

15일 개봉한 영화 '쓰리 썸머 나잇'(감독 김상진)은 김동욱(31)이 전역 이후 처음으로 선택한 작품이다. 2012년 '후궁: 제왕의 첩'(이하 '후궁')을 끝으로 스크린을 잠시 떠났던 그가 3년 뒤 정통 코미디 영화로 복귀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김동욱은 한껏 여유로운 연기로 코믹한 변신을 시도했다.

영화 '쓰리 썸머 나잇' 김동욱

'쓰리 썸머 나잇'은 남자라면 누구나 꿈꿨을 일탈을 그린다. 여자친구와 직장에 치이며 살고 있는 세 친구가 답답한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부산 해운대로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동욱은 세 친구의 중심을 잡아주는 명석을 연기했다. 만년 고시생으로 자신보다 먼저 사법고시에 패스한 여자친구에게 시달리는 명석은 취업도 연애도 쉽지 않은 30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영화로는 처음 도전하는 코미디다. 그러나 김동욱은 자신이 있었다. "원래 코미디를 좋아해요. 연극이나 방송에서는 코미디를 했는데 유독 영화만 제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호기심이 더 생겼어요. 망가질 자신은 늘 있었거든요(웃음)." 선배 배우 임원희가 동갑내기 친구로 캐스팅된 것도 흥미를 더했다. "캐스팅 조합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임원희 선배의 캐스팅이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으니까요."

영화 속에서 김동욱은 제대로 망가진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원빈과 비교하는 대사도 아무렇지 않게 던진다. 상상 속 장면이지만 비키니 차림으로 여장을 한 모습도 코믹하다. "사실 부끄러웠어요. 여장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비키니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촬영할 때가 되니 기왕 하는 건데 예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영복도 가발도 직접 열심히 골랐죠(웃음)."

'후궁'까지만 해도 김동욱의 연기에는 어떤 강박 같은 것이 보였다. 앳돼 보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인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쓰리 썸머 나잇'에서의 김동욱은 그때와 전혀 다른 편안함을 보여준다. 이번 영화에서는 디테일한 계산을 하지 않고 상황에 몸을 던지며 연기했다. 전역 이후 30대를 맞이한 그의 달라진 모습이 그 속에 있다.

전역 후 코미디로 영화 복귀
30대 맞이하면서 여유 생겨
강박은 벗고 편안하게 연기

"이전에는 역할이나 연기에 강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20대 때는 캐릭터 욕심 때문에 많이 조급했어요. 하지만 30대 초반을 지나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은 확실히 여유가 생겼어요. 주어진 것들에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쓰리 썸머 나잇'을 촬영한 뒤 JTBC 드라마 '하녀들'로 안방을 찾았던 김동욱은 오는 8월부터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를 통해서다. 30대가 된 지금 김동욱의 목표는 "쉬지 않고 작품을 하는 것"이다. "조급했던 20대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죠. 30대라서 특별한 목표는 없어요. 영화든 무대든 연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싶을 뿐입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제훈)

조선브로드웨이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

셰익스피어 고전과 장화홍련전 결합… 8월21일 개막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 하나인 '한 여름 밤의 꿈'과 우리나라 고전 '장화홍련전'을 엮은 창작뮤지컬이 탄생했다.

조선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표방한 '한 여름 밤을 꿈'은 숲 속 귀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100여년 전 개화기를 배경으로 명성황후의 명으로 고종 황제의 은혼식에서 상영될 영화 '장화홍련전'의 촬영 해프닝이 극중극 형태로 펼쳐진다. 극중 촬영 에피소드는 1924년 9월 5일 단성사에서 영화 '장화홍련전'을 개봉해 대성공을 거둔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다.

사랑에 집착하는 남자 길상 역은 뮤지컬 배우 이훈진·김보강이 번갈아 연기한다. 바람기 많은 숲의 황제 임황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숲의 황후 목후 역은 김경선이, 길상을 짝사랑하는 여자 순진 역은 김희원 등이 맡았다. 5인조 걸그룹 크레용팝의 초아는 집안의 정략결혼을 피해 야반도주하는 여인 소선 역을 맡아 뮤지컬 '덕혜옹주'에 이어 두번째 나들이를 한다.

왼쪽부터 오광록, 이보람, 초아, 최수형, 정상윤.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은 오는 8월 21일~11월 1일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15일 오전 1차 티켓이 오픈됐다. 문의: 02)766-9001

/김민준 기자 mjkim@

star bag

논란 후 첫 공개석상

배우 **이병헌**이 오는 24일 열리는 영화 '협녀, 칼의 기억' 제작보고회에 참석한다.

이병헌이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은 2013년 이민정과의 결혼식 기자회견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동영상 협박 사건 이후 첫 공개 석상이기도 하다.

솔직한 러브송 발표

가수 **박재범**이 오는 17일 신곡 '마이 라스트(My Last)'를 발표한다.

'마이 라스트'는 연인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박재범 특유의 솔직한 가사로 담은 러브송이다.

매력적인 음색의 후렴구가 인상적이다. 로꼬, 그레이(GRAY)가 함께 참여했다.

씨스타 소속사와 계약

가수 **유승우**가 씨스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중 새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할 예정이다. 스타쉽 측은 15일 "이번 컴백 앨범은 유승우가 갇혀있던 기존의 틀을 벗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신과 함께 새 출발

그룹 공일오비 멤버 **장호일**이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새 식구가 됐다.

미스틱 측은 15일 "공일오비의 기타리스트이자 최근 배우로 활동 중인 장호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음악과 연기 등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장호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역사와 장르의 절묘한 만남

■ 암살

스토리와 연출력 탄탄대로 오락성·완성도 갖춘 작품

의아한 반전·복잡한 플롯 전작보다는 조금 아쉬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연출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하 '바스터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볍게는 다룰 수 없는 소재다. 그러나 장르영화의 대가인 타란티노 감독은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역사의 무게감을 과감히 떨쳐냈다. 실제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바스터즈'의 결말이 극적인 쾌감으로 다가온 이유다.

최동훈 감독의 '암살'을 보면서 '바스터즈'가 떠올랐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장르영화라는 점이 닮아서다. 그러나 '암살'은 '바스터즈'처럼 시종일관 유쾌하지 않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 '도둑들' 등 최동훈 감독의 전작과 비교해도 영화는 다소 묵직하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아픔이 여전히 한국사회 속에 깊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암살'의 기본 스토리는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독립군 안옥윤(전지현), 속사포(조진웅), 황덕삼(최덕문)과 임시정부대원 염석진(이정재), 그리고 이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과 영감(오달수)의 이야기가 얽혀 고설킨다. 충무로의 소문난 이야기꾼인 최동훈 감독의 변함없는 스토리텔링 실력이 여전히 빛난다.

영화는 1930년대의 이야기만 다루지 않고 1910년대부터 해방 이후 1949년까지 이야기의 무대를 확장시킨다. 한국 근대사의 한 순간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최동훈 감독의 장기인 장르영화로서의 재미를 놓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만 떼어 놓고 본다면 영화는 그럴싸한 느와르이자 첩보물이다. 역사적 무게감과 장르영화의 절묘한 만남이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최동훈 감독의 전작들에 비하면 짜임새가 헐거운 설정들이 유독 눈에 밟힌다. 스포일러라 밝힐 수 없지만 몇 가지 반전은 약간의 의아함이 들기도 한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만큼 영화의 플롯 또한 복잡하다. 끊임없는 우연과 오해 속에서 쌓여가는 긴장감은 140분의 긴 러닝타임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다소 과하게 이야기를 꼬았다는 느낌이 든다.

'암살'은 영화적인 오락성과 완성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초호화 캐스팅에 순제작비 180억원에 달하는 '암살'이 다양한 기준을 지닌 대중의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다. 개인적으로는 결말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 결말이 많은 관객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 것 같다. 15세 이상 관람가. 7월 25일 개봉.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코빅' 대표 브레인 출동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오후 11시

'코미디 빅리그'의 대표 브레인 양세형·이진호 콤비가 스튜디오를 찾는다.

MC들은 의외의 손님 등장에 긴장감이 풀린다. 그러나 이진호가 과학고 출신의 인재로 밝혀지고 양세형이 학창 시절 교대 대회 1등을 싹쓸이한 전력을 알게 되자 그들을 '뇌섹남'으로 인정하게 된다. MC들은 의외의 스펙을 가진 두 개그맨과 함께 슈퍼카를 만드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입사 면접 시험에 도전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 10분

7월 여름 스페셜 야간매점 3탄 '셰프 특집' 2부가 방송된다. 지난주에 이어 심영순·이연복·샘킴·이욱정 PD·정엽이 출연해 본격적인 야간매점 대결에 돌입한다.

◆ JTBC '님과함께 시즌3'

오후 9시 40분

윤건은 캠핑 데이트를 하면서 장서희의 연애 세포를 깨우는 데 도전한다. 숲이 우거진 자연 속에서 비장의 무기인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올리브TV '한식대첩3'

오후 9시 40분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우게 만드는 '밥도둑'을 주제로 요리 경합이 펼쳐진다. MC 김성주는 인내심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밥도둑들 앞에서 결국 이성을 잃고만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72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8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8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시간을 달리는 TV (2회)	55 딱 너 같은 딸 (44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문화유산 코리아>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2회)	00 밤을 걷는 선비 (4회)	00 가면 (16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가타카>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15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0회)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41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2회) (재)		10 수요미식회 (24회)		20 파이터	◆ 프로야구 (18:30) 넥센 vs 삼성 (SPOTV+) 롯데 vs 한화 (MBC SPORTS+) KT vs 두산 (SKY SPORTS) LG vs KIA (SBS SPORTS) SK vs NC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30 오늘 뭐 먹지? (79·80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진짜 공부비법 (2회)	30 주문을 걸어 (1회)	00 사자의 사냥전술	40 무비스토커 (2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1회)	40 한식대첩 3 (9회)	30 한식대첩 3 (9회)	00 표범의 눈물		
22시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6회)	00 짝패	
23시	00 썰전 (124회)	00 문제적 남자 (21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9회) 20 오늘 뭐 먹지? (80회)	00 프로그맨 3부		
24시	20 마녀사냥 스페셜 (100회)	20 집밥 백선생 (9회) (재)	00 한식대첩 3 (9회)	00 콜드 워터 골드 (8회)	00 블랙 스완	

유럽 축구 이적시장 오픈… '돈잔치' 시작

스털링, 865억에 맨시티행 확정
발렌시아, 이적료만 1255억 지출

유럽 축구의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면서 천문학적인 돈잔치가 시작됐다.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1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뛰던 라힘 스털링(21·**사진**)과 리그 사상 최고 이적료에 5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털링의 이적료는 최고 4900만 파운드(약 865억원)에 이른다. 맨시티는 리버풀과 4400만 파운드(약 777억원)의 이적료를 지급하고 추가사항에 따라 500만 파운드(약 88억원)를 더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카를로스 테베스(31·보카 후니어스)가 200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맨시티로 옮기면서 기록한 4700만 파운드(약 830억원)의 최고 이적료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스털링은 맨시티와 5년 계약에 주급 20만 파운드(약 3억 50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맨시티는 스털링의 이적료 지출로 유럽 축구팀 중 5번째로 많은 이적료를 지출한 팀이 됐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이적료를 지출한 팀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다. 포르투갈의 명문 벤피카의 공격수 호드리고 모레노(24)와, 맨시티의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29)를 각각 3000만 유로(약 376억원)에 영입하는 등 총 1억20만 유로(약 1255억원)의 이적료를 지출했다.

발렌시아는 최근 싱가폴 사업가인 피터 림이 새 구단주로 오면서 공격적인 영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루이 실바, 안토니오 디아스, 필립 네빌 등 새로운 코칭 스태프진을 꾸리면서 다음 시즌을 위한 팀 리빌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썼지만 여전히 영입 명단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를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모르간 슈나이델린(25)의 영입에 3500만 유로(약 439억원), 유망주 멤피스 델파이(21)의 영입에 2750만 유로(약 345억원)를 지출하면서 총 9850만 유로(약 1236억원)를 썼다. 맨유는 주 공격 자원이었던 라다멜 팔카오(29), 판 페르시(32) 등을 내보내면서 새 공격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발렌시아의 주전 수비수 오타멘디(27)의 영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위는 유벤투스로 8810만 유로(약 1105억원)를 지출했고,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미 7500만 유로(약 941억원)를 썼다.

아직 이적시장이 약 46일 가량 남았기 때문에 부자 구단으로 알려진 첼시(잉글랜드), PSG(프랑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등이 본격적인 영입 전선에 뛰어든다면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구단들도 다음 시즌을 위한 선수 영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15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제86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마이크 트라우트(LA 에인절스)가 MVP를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어보이며 웃고 있다. /AFP 연합뉴스

'별들의 전쟁' AL 3년 연속 우승

트라우트, MLB 올스타전 사상 첫 2연속 MVP

'별들의 전쟁'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리그가 3년 연속 우승했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제86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리그 올스타팀이 내셔널리그 올스타팀을 6-3으로 이겼다. 아메리칸리그는 역대 전적에서 41승 2무 43패로 3년 연속 승리했다.

경기는 올스타전 답게 홈런포로 시작됐다. 아메리칸리그 1번타자로 나선 마이크 트라우트(LA 에인절스)는 1회초 내셔널리그 선발 잭 그레인키(LA 다저스)로부터 솔로포를 터트렸다. 1989년 보 잭슨의 솔로포 이후 26년 만에 나온 올스타전 선두타자 홈런이다.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은 1977년 조 모건 이후 38년 만이다. 트라우트는 이 홈런으로 '올스타전 첫 타석 사이클링 히트'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올스타전 첫 선발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른 그레인키는 이후 삼진 행진을 벌였다. 2이닝 동안 1피안타(1홈런) 1실점 4탈삼진을 기록했다.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5삼진 이후 올스타전 한 경기 최다 삼진 기록이다.

내셔널리그는 2회말 2사 3루에서 조니 페랄타(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우전 적시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류현진의 팀 동료인 좌완투수 클레이턴 커쇼(다저스)가 1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무너졌다. 강정호의 팀 동료인 앤드루 매커천(피츠버그 파이리츠)이 6회말 솔로포로 추격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메리칸리그는 7회초 매니 마차도(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적시 2루타와 필더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2점을 뽑았고 8회초에는 브라이언 도지어(미네소타 트윈스)가 생애 처음으로 들어선 올스타전 타석에서 홈런을 쳐내며 승기를 굳혔다. 내셔널리그는 9회말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선제 솔로포 등 3타수 1안타(1홈런) 2득점을 기록한 트라우트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하희철 기자

광주U대회

종합 1위 한국선수단 공식 해단식 마무리

14일 막을 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단은 15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선수단장 미팅룸에서 공식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유병진 선수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적 보고, 해단식사 및 답사, 단기반환 등의 순서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유 단장이 직접 선수단기를 반환하는 것으로 해단식을 마쳤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7개와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를 획득해 국제 종합 스포츠 하계 대회 사상 처음으로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유망주들은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고 스타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내년으로 다가온 2016 리우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예고했다.

/하희철 기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선수단이 15일 오전 광주 U대회 선수촌 내 선수단장 미팅룸에서 해단식을 했다. 유병진 선수단장이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에게 선수단기를 반환하며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격투기 황제, 링으로 돌아온다

표도르 3년만에 복귀 "고질적 부상 회복 돼"

격투계 최강자로 손꼽혔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39·러시아·**사진**)가 복귀를 선언했다.

15일(한국시간) 러시아 격투기 전문 매체 유니언MMA는 "표도르가 3년만에 링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했다.

39전 34승 4패 1무효의 전적을 자랑하는 표도르는 역대 최강의 헤비급 MMA 선수 중 한 명이다. '60억분의 1의 사나이'라는 수식어로 한국 팬들에게 익숙하다. 일본이 MMA계의 중심이던 2000년대 초반부터 링스, 프라이드 등 단체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연승

행진을 벌이며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표도르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0년 가까이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이후 파브리시우 베우둠, 안토니오 시우바(이상 브라댄 헨더슨(미국)에 3연패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3년 제프 몬슨(미국), 이시이 사토시(일본), 페드로 히조(브라질)에 3연승하며 명예를 회복한 뒤 은퇴했고 2012년 6월부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로부터 국가체육위원회 위원 자리를 물려받아 행정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해왔다.

표도르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가로서 러시아 종합격투기(MMA) 발전을 위해 일하며 이 종목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수 있었고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제는 링으로 복귀할 때인 것 같다. (지난 3년간) 고질적인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당장은 경기를 치를 몸상태가 아니지만 최근 최고의 코치와 파트너들을 모아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희철 기자

National Pension Fund Advisory Committee Urgent Meeting 'Empty Gangeong'

<국민연금기금 자문위 긴급 회의 '속 빈 강정'>

National Pension voting right function specialty committee had an urgent meeting on the 14th at The K Hotel regarding the merging of Samsung C&T and Cheil Fabric. Six hours of presentation without any point which made it seem like media manipulation, is causing more confusion. The main interest of the people which is the merging of Samsung was not even mentioned. Some say that private organization voting rights committee will be intimidated in front of 'Samsung' and not be able to say what must be said, just like the Fund operation headquarter.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위)가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또다시 '언론플레이' 성격의 알맹이 없는 발표문만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작 국민들 관심거리인 삼성 합병에 대한 찬반 여부는 논의조차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에 이어 민간기구인 의결권위마저 '삼성'이라는 거물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할말은 제대로 못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9	
			3	8		5		
9	3		4				1	6
	2			6				1
6								9
1				5			3	
5	6				7		8	3
		2		9	3			
	4		8			7		

		7		4		9	6	
					2	8		5
8			9				3	
	9				7			2
6	1						5	9
7			2				8	
	7				5			8
2		4	7					
	6	3		9		1		

스도쿠 정답

4	5	7	6	2	1	3	9	8
2	1	6	3	8	9	5	4	7
9	3	8	4	7	5	2	1	6
7	2	3	9	6	4	8	5	1
6	8	5	1	3	2	4	7	9
1	9	4	7	5	8	6	3	2
5	6	1	2	4	7	9	8	3
8	7	2	5	9	3	1	6	4
3	4	9	8	1	6	7	2	5

3	2	7	5	4	8	9	6	1
9	4	6	1	3	2	8	7	5
8	5	1	9	7	6	2	3	4
4	9	8	6	5	7	3	1	2
6	1	2	4	8	3	7	5	9
7	3	5	2	1	9	4	8	6
1	7	9	3	2	5	6	4	8
2	8	4	7	6	1	5	9	3
5	6	3	8	9	4	1	2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은 언제할지 취직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결혼은 40살 이후… 이직 말고 실력 쌓으세요

외기러기 인생 남자 77년 7월 31일 양력 점심후

Q 저는 올해 39세 된 남성입니다. 사주팔자를 피해 갈 수가 없어서인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선을 보고 미팅을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다른데 가서 사주를 보면 결혼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선생님께서 최종 판단을 해주세요. 언제나 결혼이 가능한지요? 연분은 언제나 오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전자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일만 고되고 봉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려는데 운이 되는지요?

A 사주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소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논이나 밭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 흙먼지가 날리고 뜨거운 태양 볕이 내려 쬐니 소가 구슬땀을 흘리고 씨를 뿌린들 제대로 싹이 올라오는지 염려스러운 구조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성(財星)은 여성이나 재물을 의미하는데 기토(己土)생일간이 배우자인 수기(水氣)를 나타내는 오행이 없어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주 뿌리에 화국(火局:불로 무리를 이룸)이고 생일지(生日支)에 내장 돼 있는 수기(水氣)마저 충살과 흉살을 받아 기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귀한 자식으로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조를 보면 결혼청첩장을 돌리면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렵게 혼인을 해도 오래 살지 못하고 파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40이 지나서 2020년이 되어야 결혼 운이 들어오니 꾸준히 저축하면서 자신의 실력 양성에 힘쓰십시오.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운도 흡족하지가 못합니다. 관심분야가 다양 하고 이것저것 손을 대보는 것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끝을 내지 못하는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게 되니 이러한 성격임을 잘 아시고 한 가지 일에 전문가가 되고 자신을 값있게 나타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쌓도록 하세요. 공무원 시험보다는 현재 회사에서 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거기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 하면서 대인 관계를 잘 해나가면 그것이 곧 재산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측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예측이란 점성술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떠한 과학기술적인 분석 기법으로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낸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일반인에게 예측이란 실력 배양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6일 (음 6월 1일)

48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60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72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4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49년생 이래 저래 변화가 있게 될것입니다. **61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73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85년생**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50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62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74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63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75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87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52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64년생** 연인과 다툼수나 이별수가 있겠습니다. **76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88년생**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날 것입니다.

53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5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7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89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54년생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6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8년생** 순탄하게는 사업이 흘러갈 것입니다. **90년생** 큰 재물을 얻을것입니다.

55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67년생** 재길을 잃거나 해를 당하게 됩니다. **7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91년생**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56년생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80년생**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92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7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습니다. **69년생**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훤합니다. **81년생**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93년생** 여행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8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70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82년생**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94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59년생 귀하의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7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83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연평해전과 여인의 향기

이시수
미자리온 대표

장안의 화제인 '연평해전'을 봤다. 실화란 점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만큼 집중도가 높았다. 용감한 대한민국 해군이 비겁한 적의 폭탄과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월드컵 4강에 열광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화한 것이다.

92년에 개봉한 '여인의 향기'(Scent Of A Woman)는 실명한 퇴역장교 프랭크 슬레이드와 가난한 고교생 찰리 심스와의 여행을 그린 영화로 10번 이상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미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장교에 대한 미국사회의 존경심이었다. 전역 중령 프랭크 슬레이드는 군 복무 중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려 실명하였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보상금은 국민성금을 제외하면 3100만~8100만원에 불과했다. 누가 보기에도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다.

그렇다면 미군의 전사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 미군 전사자는 1인당 5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그중 정부 조의금 10만 달러는 사망한 지 24시간 이내에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이외에도 유족들이 받는 혜택은 매우 많다. 지급예정 임금, 수당, 60일간 유급 휴가수당, 주택·식료품 보조비, 여행·이사 경비, 3년간 5만 달러의 대학 학비 무상 지원 등 세심하고 꼼꼼하게 유족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다.

혹자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력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국민성금을 제외하고도 7억여원까지 받는다. 문제는 경제력이 아니라 의지의 차이이다.

돈도 돈이지만 영화 '여인의 향기' 곳곳에서 보여주는 전역장교에 대한 존경심은 놀라울 정도이다. 교통경찰을 비롯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중령님'이란 호칭과 존경심을 표한다.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작년 10월 비행기 일반석 승객인 한 미군(일등상사)이 제복이 구겨질까봐 승무원에게 보관을 부탁했다. 승무원은 옷장이 일등석 승객에게만 제공된다며 거절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앞다퉈 미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가지는지는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인의 향기'의 명대사가 있다. "실수를 해서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다"(If you make a mistake, if you get all tangled up, you just tango on). 더 이상 스텝이 꼬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이해할만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군인에게 적어도 그에 걸맞은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빨간불 켜진 우리은행, '골든타임' 잡아야

기자 수첩
백아란
<경제부 기자>

우리은행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은행의 전통적 수익원인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4전5기'를 외치며 재시동을 걸었던 민영화 작업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매각 관련 시장 수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예보가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지분(48.06%)을 5~10곳 정도의 과점주주들에게 분할매각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매각 수요가 마땅찮아 이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는 대부분 사모펀드(PEF)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 국민 정서가 투기자본 성향이 강한 사모펀드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결국 매각 작업은 잠정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여타은행과 비교해 출발이 늦다.

실제 4대 은행(지주)인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KB금융 역시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올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과 인터넷은행 출범 등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이 여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자산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과거부실(Legacy NPL)과 대기업 관련 일회성 대손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의 PBR은 0.35배로 리먼사태 시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주가 또한 15일 현재 전날보다 5.5% 떨어진 8930원에 장을 마쳤다.

한편 공자위는 오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22일 우리은행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가진다.

이제는 민영화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 금융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과 그리스 사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사

■ 서울특별시
◇승진임용 <지방관리관> △복지본부장 남원준 △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방이사관> △대변인 김인철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행정국장 강태웅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도시계획국장 류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 환경부
◇승진 <부이사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 <서기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명노일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김신엽 △환경정책관실 환경산업과 양명식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손혜옥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안연섭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정석철
■ 한국원자력연구원
◇승진 △감사부장 노인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규 보임 <본부장> △중소중견기업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전보 <본부장> △리스크채권본부장 강병태 <부서장급> △영업총괄부장 이도열 △대전세종충남지사장 김종석 <팀장급> △채권추심팀장 나만수
■ 한국가스공사
◇전보 △비서실장 장춘규 △인사팀장 김천수 △인재육성팀장 김기표 △도입운영팀장 김치만 △도입지원팀장 정은경 △E&P지원팀장 임봉수

부고

▲이연욱씨 별세, 이승권(전 SK해운 사장·전 SK차이나 대표)씨 부친상=14일, 서울아산병원 7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02-3010-2000)
▲장돈식(전 정원종합복지원 대표이사)씨 별세, 강혜식(정원노인요양원 원장)씨 상배, 상열(활기찬정형외과의원 원장)·두열(체인지클리닉 원장 겸 정원종합복지원 대표이사)·선영씨 부친상, 이경하(JW중외그룹 부회장)씨 장인상=14일 오후 6시9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02-2227-7550)

社說

증권사들이 더 노력해야

증권업계에 모처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남발해 온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해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일 업계와 공동으로 '투자설명서 용어 정비반'을 꾸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등 투자 설명서에 쓰이는 많은 용어가 투자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 설명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와 외래어 단어 171개를 한글 표현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최근 한화투자증권이 보고서 등에 실리는 증권용어를 순화하기로 한 데 이어 협회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때늦긴 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증권사들이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와 보고서 등의 자료와 문서에는 해괴하고 국적도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다. 투자자더러 보라고 한 것인지 말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글자만 한글이지 사실은 어느 나라의 문서이고 어느 나라의 자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도 증권사의 보고서나 투자설명서 등을 보고 나면 질려서 포기하게 된다.

증권업계나 재계는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기업가치나 경제력에 비해 주가 수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해 왔다. 저평가돼 있다는 불만이다. 그 요인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배당률이나 전근대적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안이한 태도 역시 한몫한다. 그러한 '불친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서와 보고서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덜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증권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무엇보다 투자자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한우 도매가 사상 최고치 전망

소비자 119

추석 식탁 물가 비상

다가올 추석 식탁 물가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올해 추석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이 지난 2010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소값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가 감소해 올해 추석인 9월27일 즈음 출하될 도축 마릿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8~9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7000~1만9000원으로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우 사육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다. 정부가 한우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암소 사육두수를 제한하면서 사육 두수가 줄었고 올해 초 농가들이 설 수요를 겨냥해 한우 도축을 늘리면서 설 이후부터는 고급육 공급 규모가 축소됐다.

이로 인해 한우 가격은 계속 상승해 지난달 한우 1등급 kg당 도매가격은 1만6288원으로 2013년 5월의 1만1515원보다 41.5% 올랐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18% 상승했다.

한편 한우 도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1% 상승하면 쇠고기 수입량이 0.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한우 가격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를 발생시켜 수입육의 수요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우 수급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단계뿐만 아니라 공급 과소 단계에서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